

종묘에는 왕이 다니기 위해 깔아놓은 어도가 있다. 그것은 얇고 넓직한 박석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종묘 안에 관리사무소를 새로 만든다고 크레인으로 이들을 짓발아 50여장이나 깨뜨려 놓았다.

이 일이 신문에 보도되자 문화재청에서는 이들 박석이 1984년에 보수하면서 새로 놓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종묘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실수를 범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내가 경주생활 중에 즐겨 찾던 곳이 있다. 바로 기림사의 대적광전이다. 이 전각에는 모셔진 삼신불의 위용이 사람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배경으로 삼은 탱화도 일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이곳으로 자주 이끄는 것은 신발을 벗고 디딜 때 느껴지는 마루의 생생한 감촉이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짜릿함. 그것은 조선시대, 그것도 후기의 건축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감촉이다.

거칠지만 생동감이 강렬하고 울퉁불퉁 투박해 보이지만 빈틈없이 짜여진 그러한 마루였다. 그런데 7년 전에 문화재청에서 해체수리를 하면서 옛 마루를 새 마루로 바꾸었다. 강렬한 역사의 에너지를 내뿜는 마루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파트 거실처럼 맑직한 마루가 그 자리를



불자 세상보기

정 병 도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오래된 마루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낭패인가? 종묘의 깨진 박석 소식을 접하자 기림사의 아물어 가는 상처가 다시 도진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불국사 대웅전의 마루는 살아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불국사에 가면 석가탑과 다보탑을 보는데 여념이 없지만, 나는 슬며시 대웅전에 들어가 마루를 온몸으로 느껴본다.

이것은 분명 조선시대 후기의 거칠고 생명감이 넘치는 감촉이다. 이 짜릿한 전율을 나로 하여금 졸졸 우리 미술에 빠지게 하는 원동력이다.

오래된 마루를 밟으며 즐길 수 있는 행운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다. 중국도 목조건축이 많지만 의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마루 위를 걸을 수 있는 곳이 드물다. 일본의 오래된 사찰을 방문하면 마루를 밟는 색다른 경험을 맛볼 수 있다.

그것은 무언가 깔끔하면서 답답한 느낌이다. 조선 후기 사찰의 마루에서 경험하는 투박하면서 강렬한 느낌과는 사뭇 다르다. 발끝으로도 충분히 그 나라와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질감, 그것은 문화재를 보수할 때 가장 심각하

게 고려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나무를 자귀로 거칠지만 멋있게 다듬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솜씨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쉽게 공사를 끝낼 심사인지 거친 것을 아무런 고민 없이 손쉽게 고운 것으로 뒤바꾼다. 그러니 옛 맛이 살아날 리 만무하다.

물도 마찬가지이다. 경주에 있는 나원리5층석탑을 보자. 이 탑은 8세기 전반의 준수석 석탑이다. 신라시대에서 보기 드문 5층탑에 그 규모도 제법 크다.

그런데 이 탑도 언제가 보수를 한다고 헌 부재를 빼내고 새 부재를 끼어 넣었는데, 이 역시 정성스런 손길은 찾을 길이 없다. 그 옛날 신라의 석공처럼 한없는 시간동안 정으로 하나하나 쫓는 것이 아니라 그라인더로 순식간에 갈아버린 것이다.

보수한 탑에는 신라다운 정취보다는 세월을 잃은 기계냄새가 탑 주위를 진동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구의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 우리들은 위에만 관심을 쏟고 바닥에는 무심할까? 왜 우리들은 쉽사리 새 것으로 바꾸고 질감을 그대로 무심경할까?

발끝에 전해지는 전율이 점점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바뀌어 간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한국불교가 해외에 불교대학을 설립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능인선원과 하와이 무량사로부터 들려온 이 소식은 그 동안 많은 불교국가들 중에서도 내로라하는 교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우물안 개구리처럼 나라 안을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불교의 발전에 큰 전기가 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한국불교가 한국불교로서만 독자성만 갖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세계와의 공감 속에서 우리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한국불교도 없어지게 되고 말 것이다.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이념을 제공하는 종교들이 이 땅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불교 또한 세계화의 길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한 노정 가운데서도 가장 서둘러야 할 것이 학문과 지식의 전당인 대학의 해외설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 불교대학의 설립을 단지 한국불교의 수출 정도로만

해외에 세우는 한국불교대학

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해외 불교대학은 세계의 여러 사상 조류와 종교, 다른 나라의 불교의 흐름을 그 현지에서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을 통해 한국불교가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창조적 산실이어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해외 포교가 한계를 지녔던 것도 한국불교의 독창성만을 고집해온 점에 큰 이유가 있다는 점을 시급히 삼아, 한국불교의 독창성을 세계적인 보편성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대학의 설계를 짜 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능인선원의 예를 본다면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기에 이러한 점에 대한 우려를 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국내 포교사에 일대 전환을 이룬 지광 스님의 혜안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도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한국불교의 우수성이 세계의 미래에 밝은 빛을 던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출발, 거기에 거는 천만 불자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원만한 성취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

성대웅(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수능은 끝났지만...

한 수행자가 경정 화상에게 물었다. "저는 곱질을 깨고 나오려는 병아리와 같이 부디 화상께서는 밖에서 곱질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러면 잘나올 수 있겠느냐." "만약 제가 밖으로 잘나오지 못하면 스님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그러자 화상이 그를 질책했다. "예기, 이 영청한 놈!" (역암록)

이 이야기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지 일러주는 선사들의 '졸탁동시' 화두다. 졸탁은 스스로 깨치고 나오지 못하면 그 안에서 목숨을 잃고 마는 병아리처럼 공부도 스스로 깨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 즉, 부모나 스승은 안에서 치열하게 공부(수행)하는 병아리를 격려할 뿐 부모와 스승을 위한 공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11월 17일 고3 수험생들의 수능시험이 치러졌다. 12년 동안의 공부를 평가받는 결정적 순간이었을 것이다. '공부(工夫)'라는 말은 원래 중국 선종의 '묵묵히 수행을 쉬지 않고 힘 없이 정진하는 것'에서 유래 되었다. 마찬가지로 수능시험을 보았다고해서 이들의 공부야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다시 대학진학을 통해 보다 큰 공부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인천의 큰 스승인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공부에 임하는 자세를 일러주기 위해 많은 말씀들을 하셨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공부를 하라고 하셨을까? 부처님은 공부하되 '자리아타(自利利他)'의 공부를 하라고 가르쳤다.

자신에게 이로우면서 남에게도 이로운 '원력'을 가진 공부를 말씀하신 것이다. 단지 대학가서 출세하고 잘 살기 위한 공부야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깨우치고 그 깨우침으로 세상을 밝히는 '참다운 공부'에 원력을 세우기를 바란다.

조용수(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신행증'이 남발되면...

IMF 한파가 몰아왔을 때보다 더 심각한 불황이라고 한다. 좋은 대학성적과 영 어성직을 가지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언론의 보도를 볼 때면 불자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취업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만난다. 지극정성으로 자식과 친지의 취업을 기원하는 불자들도 있지만, 무턱대고 '취업하게 해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신도를 앞세워 낮선 아주머니 한분이 찾아왔다. 내년 2월이면 딸이 간호대학을 졸업하는데,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했더니 동국대 불교병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 달라고 했다. 문제는 단순한 추천서가 아닌 점이었다. 아주머니는 수계년도, 재직 사항, 신도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는 '신행증'을 요구했다. 그래서 나는 써주기 힘들다고 했다. 사찰법회에 한번도 참석해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써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다른 스님들은 학생들에게 추천서를 잘 써주는데 너무만하며 절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 아주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과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한다. 위장서류를 만들어서 병원에 취업한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열심히 신행활동을 하겠는가?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릴 수 있겠는가? 어려운 처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의 발전과 불법 흥포를 위해서는 일선 사찰에 있는 스님들이 좀더 냉정하게 처신해야 한다.

온정주의에 휩쓸려 '추천서'를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부메랑이 돼 불교계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포교 문제다. 갈수록 줄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불자의 현실이 사이버 어린이·청소년 불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새싹포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불교가 건강해진다. 이제부터라도 현실적인 어린이, 청소년 불자를 키워내 부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제대로 배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베풀도록 하자. 이렇게 할 때, 여법(如法)한 종교행정과 불법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은 스님(보령 세원사 주지)

사찰별 호스피스 활성화돼야

주변에서 불자들이 임종 직전 개종을 하는 사례를 적잖게 접하게 된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접할 때마다 불교호스피스 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최근에도

내가 다니는 절에서 임종직전 다른 종교로 개종한 불자의 소식을 접했다. 형언할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데에는 당사자의 왜곡된 신앙이나 잘못된 신도교육·관리 등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사찰의 호스피스 활동이 부족한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사찰의 호스피스 활동은 거의 없다. 일부 사찰에서 배출하고 있는 호스피스 봉사인력은 턱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이렇다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찰에서는 호스피스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바로 시니어 계층이다.

요즘처럼 가족의 개념이 약화된 사회 구조에서 호스피스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족간 종교가 각기 다른 경우도 많아 더욱 그렇다. 가족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 임종직전 개종할 확률이 높은 것은 이를 반증한다. 이는 곧 사찰의 호스피스 활동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찰별 호스피스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도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정신적인 위안과 관심을 주는 불교야말로 바른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다.

이순영(경기도 광주시 직동)

'연대' 민명

심민섭



“한밤의 포근한 쿠션” MUSIC N 유영석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음악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뮤직 N 유영석입니다> 음악과 웃음을 꽃 피웁니다.
매일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푸른하늘의 유영석씨가 푸른 하늘 같은 청명하고
향기로운 2시간을 열어줍니다.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